

연출이판-연출가전 김철승



가 가 가 가 가
가 마 마 마 마
마 마 귀 귀 귀
귀 귀 귀 이 이
이 이 이 이 . 눈
눈 눈 눈 눈 눈 .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분들과 나누고자
공연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없이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연출의 판-연출가전
<까마귀의 눈>
— 이상 「오감도」 시제1호

공동창작
연출 김철승

일시 2019.10.11.금 - 11.3.일
장소 소극장 판
제작 (재)국립극단

2018년 신설된 [연출의 판]은 창작극 및 작품의 개발과 발굴에 힘쓰고자 하는 신입 예술감독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연출가 초청 작품개발 및 제작 프로젝트입니다. [연출의 판-연출가전]은 현재 진행중인 연출가들의 다양한 형식적 시도를 관객에게 소개합니다. 2011년 시작된 국립극단 '젊은연출가전'을 이어받아 연출가의 폭을 넓히고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도전 또는 집요한 연극적 실험을 시도해온 연출가의 신작을 선보이며, 이를 통해 연출가와 관객의 감각이 충돌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출의 판

돌아가는 길은 좋다. 멀리 돌아가는 길은 참 그렇다.
바로 직진으로 못 가겠는 때가 있다. 멀리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
바로 맞서고 대면하기 싫을 때가 있다.
그건 그토록 싫은 일만 그런 건 아니다.
싫는 게 아깝게 아름다운 것도 그럴 수 있다.

‘한 문장으로 명쾌하게 말해봐. 그걸 못하면 넌 네가 무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야...’
늦은 나이에 저 말을 들었다. 억울해하면서 그 자리에서 인정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나와 지금까지 그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산다. 열심히.
명쾌하지 않아도, 혹은 명쾌하지 않아서 살아남은 말과 글이 있으니.

이상이 그랬다.
이상의 글을 읽을 때에도, 공연을 준비할 때에도 그랬다.
그를 이해하고 싶어 안달이 나진 않는다. 아무래도 그는 ‘이해’할 대상이 아니란 생각이다.
그래도 그에게 간다. 그의 글에게 간다.
꽤 멀리 돌아간다.
날카롭게 솔직해지는 것도 잘 못하겠다.
이상은 끈적하게 싫거나 아니면 어슴푸레 아름답다.
명쾌한 게 없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다가간다.
그러고 나니
왜 이상을, 그의 「오감도」 시제1호를 선택했는지 딱히 답 못해도 미안하거나 창피하지 않다. 그저 불안함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도 그랬을까 싶다가 ‘아, 영 모를 일이구나’ 싶어진다.



김철승 연출

<까마귀의 눈>은 이상의 「오감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상은 ‘난해한 작품을 많이 쓴 작가’라고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작품의 내용도 친숙하지 않는데 이상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을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상을 왜 궁금해 하고 과연 이상의 무엇이 궁금해서 난해하다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이상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내려고 하는 평론이나 글, 영화 같은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도 완전히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답들이 명쾌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아마도 은연중에 이상이 100% 이해가 안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리서치를 통해서 이상을 알아볼수록 세상에 다른 난해한 것도 많은데 난해하다고 소개되는 이상을 난해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태도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이상의 작품 중에서 「오감도」 시제1호가 제일 이해가 안됐고 그래서 이것으로 공연을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그 시가 명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직 잘 모르는 와중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감도」에 담긴 불명확한 불안함을 공연으로 풀어내기 위해 이상과 주변인물, 시, 소설 등을 많이 리서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출님이 만난 이상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상의 어떤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작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렵듯이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더 공고해졌습니다. 이상은 왜 이해도 되지 않으면서 죽지 않고 끊임없이 천재적 시인으로 남아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리서치를 시작했지만 마음에 드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이상을 가장 사랑하는 작가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모두가 그가 천재임을 인정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저에게 이상의 시가 매력적이었던 부분은 잘 조립되어 있어서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을 계속 감추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은 건축을 굉장히 잘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도 마찬가지로 잘 설계해 놓았을 것이라고 이해해 보기로 하고 나서 보니까 어디에 뭘 숨겨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잘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차마 드러내지 못한 무언가가 있겠구나 싶어서 한 번 쫓아가봤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고, 그런 자신의 글을 보고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즐겼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일종의 관심만 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면 과연 문학사에 남아서 교과서에

실리고 사람들에게 계속 논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이상이 남긴 시와 소설, 편지, 노트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았습니다. 지인들의 증언이나 관계성을 통해서 드러난 이상은 예술지상주의적인 삶을 추구하던 예술가도 아니었고 가족과 친구, 주변 지인들을 굉장히 잘 챙겼던 사람인데 이상의 시를 읽고 무대에서 형상화 하다 보니 자꾸 외로운 정서가 보였습니다. 이상의 시와 소설을 따라가다 보면 문득문득 외로운 지점들과 마주칩니다. 이 사람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연습 과정 중에 드러나는 외로움 같은 단면들을 모으고 있고, 이 단면들이 모여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의 어떤 면을 이루겠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삶과 작품 중 어느 것에 더 집중해서 작업했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의 작품에 더 집중했습니다. 연습이 3주차 정도 됐을 때 리허설 중에 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기존에 만들어진 희곡을 해체해서 다시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존재하는 어떤 것을 공연화하려고 하는 건데 무엇을, 어디에서, 얼마만큼 가져와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궁극적으로 삶과 작품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부분을 다루는 것이 더 재밌겠지만 아무래도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를 통해서 이상을 보는 것이 삶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더 재밌고 궁금했기 때문에 작품에 집중해서 작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감도」 시제1호를 중심에 놓고 거기서 파급되는 것들에서 힌트를 얻어 다른 작품을 더해나갔습니다. 이상이 20살 때 폐렴으로 6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고나서 미친 듯이 작업에 몰두했는데 그 이후로 7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작품의 양이 엄청나고 시가 내적 운율을 따르거나 스토리를 따라 읽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외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위치에서 이상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시를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러 시에 접근하면서 연결고리를 발견하거나 시가 그려내는 풍경이 와 닿는 시들을 반복적으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배우와 스태프들이 이상의 글을 읽거나 주어진 주제에 대해 각자 글을 쓰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숙제의 '주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공연에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첫 질문은 연출이 합니다. 그리고 같이 참여하는 배우와 스태프들이 그 질문에 답을 하거나 관련된 질문을 던지거나 혹은 그 질문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질문을 내놓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테이블작업을 먼저 하고 런까지 마치고 나면 질문 중에서 유효한 것만 남아요. 그러면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연출과 참여자 중 누군가가 글을 써보자고 제안하고, 모두가 동의하면 진행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글이 소위 말하는 '대본'을 만드는 파트가 되고 공연이 다가오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파트를 추리는데 40개 정도가 남아요. 공연마다 격차가 크지만 한 공연 당 40~50% 정도 쓰면 굉장히 많이 쓴 편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 테이블 작업이나 당일 공연 전에 나눈 이야기에서 나온 즉흥적인 반응이에요. 배우들은 외운 말 중에서 편집해서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에 맞게 풀어내거나 과거의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창작의 순간을 겪는데, 작업물이 창작의 바탕이 됩니다. 그림으로 치면 이전에 그려냈던 것을 바탕으로 관객 앞에서 라이브 페인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연이 진행되는 도중에 배역이 바뀌거나 장면이 선택돼요. 언제 변화를 주어야겠다고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0% 연출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연이 흘러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연에서 저는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거나 끊거나 혹은 캐릭터를 살리거나 죽이는, 스파크를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스토리가 예상대로 흘러갈 때 배우들을 아슬아슬한 경계에 두고 절박한 상황에서 선택하게 만들어 이야기의 흐름을 꺾는 것이 연습과 공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파크를 일으켜요. 그렇지만 공연 전체를 어떻게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연출의 의도와 목적대로 공연이 흘러간다고 해서 공연이 만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형식을 가지고 공연을 한 지 10년 정도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야기를 만들고 배우들은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눈치를 보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남는 존재였어요. 이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하기도 했고 컨트롤하기 위해 노력도 했지만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여정이 흐르다 보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생겨요. 연출이 귓속말로 배우에게 지시를 줘도 주변이 시끄러워서 못들을 수도 있고, 잘못 들어서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의지로 듣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러한 것들이 더 자연스러운 때가 있지요. 배우를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세워 선택하게 하면서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건 매우 부자연스럽지요. 흥미롭지도 않고.

무대 위에서 즉흥적인 연출의 지시와 배우들의 선택으로 매 공연이 다릅니다. 관객들은 스태프의 노출이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정보가 없다는 것에 불만이나 불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작업 방식을 유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과연 제가 나오지 않고 스토리 라인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불만이 사라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불만을 제거하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공연을 보고 화를 내는 것도 하나의 반응이고 그 반응이 다음 공연을 준비하거나 바로 내일의 공연을 준비할 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방법 말고 더 이상적으로 즉흥을 표현할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형태가 마찰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변형이 생길지 모르지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전에 관객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것도 읽는 사람만 읽어요. 읽지 않고 관람하더라도 좋아서 또 오는 사람도 있고 다시는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궁금증을 가진 관객들이 무엇을 더 궁금해 할까에 초점을 맞추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까마귀의 눈>은 연출님의 공연을 처음 본 관객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형식과 시도일 수 있지만 연출님께서서는 계속 해오던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연출님 이번 연출의 판을 통해서 새롭게 시도했거나 발견한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즉흥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대신에 아직도 그 방법이 무엇인지 완전히는 몰라요. 새로운 공연을 할 때마다 멤버들이 대략 50% 정도가 교체되고 기존 멤버와 새로운 멤버가 섞여서 낯선 시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년 전에 공연을 같이 했던 멤버들 대부분이 다시 하게 돼서 방법이나 내용상 비교되는 부분이 많고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있습니다. 즉흥을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버릇처럼 늘 해오던 안정적인 것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찾기 위해서였는데 즉흥을 하는 것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갑자기 벌거벗겨진 채로 관객들 앞에서 즉흥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가장 잘 하는 장점을 내세우게 됩니다. 즉흥에 있어서 동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데 그 동인은 예전에 잘 이루어졌던 것을 가져온다고 해서 지금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제가 염려하던 준비가 너무 잘 된, 말뿐인 즉흥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의식과 상태를 공유하고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실험 중에 하나가 '잘하는 거 안 하기'예요. 예를 들어 논리적인 말로 풀어나가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자르고

움직임을 잘하는 사람은 움직임을 제어합니다. 공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공연을 처음 보는 관객이든 익숙한 관객이든 관객을 만났을 때 배우들도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색깔과 형태의 동인들을 찾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정리 정은서(공연기획팀)

극연구소 마찰은,
불확정성
행위와 말이, 정해지지 않아도,
예측되지 않아도 아름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으로
2009년에 창단된 극 연구
단체입니다.

장소성
'장소'가 말하는 사면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곳에는 같은
이야기가 존재할 리 없습니다.
장소에 다가가 그곳에 있을 법
한, 있으면 좋았을 말과 행위,
사람을 꺼내는 연구를 합니다.
그곳은 극장, 혹은 공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간이어도
좋습니다.

텍스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듭니다. 생활이 담긴 말과
기존에 쓰인 말들을 찾고,
대화를 하고 독백을 하고,
중간에 끊기도 하고, 전혀 다른
말을 이어붙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 공연에
들어갑니다. 공연은 연습한 짧은
텍스트들과 공연 당시의 즉흥적
말들로 이뤄집니다.

인터뷰

즉흥성
'예상치 못한' 상황에 흔들립니다.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살아내는 배우는 선택 앞에서
두렵고 그 두려움을 맞이할 때에
아름답습니다. 가능한 한 이미
만들어진 길 말고 다른 길을
가보면서 새로운 선택의 상황을
맞이해보자. 반응을 예측하고
계획하길 버리는 작업을
해보자. 매 공연은 즉흥적
선택이 가져다주는 '현재성'
을 발견해보자는 취지로 배우,
연주자, 연출이 모두 무대에
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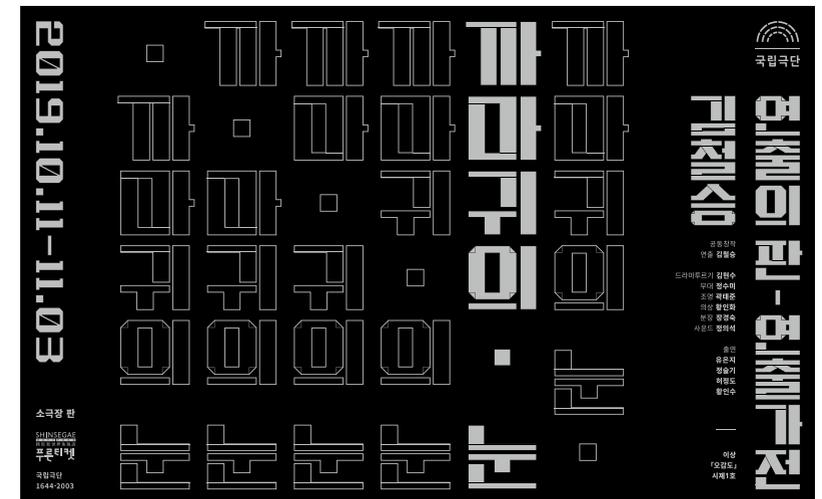
반복성
움직임은 일상적인 행위의
반복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쳐다보고, 외면하고, 서로
안는다. 단순한 동작의 반복을
통해 익숙했던 행위 이면에 자리
잡고 있던 낯선 의도와 감성을
드러냅니다.

시놉시스

본 공연은 매회 고정된 등장인물과 정해진 줄거리가 없습니다.

전 공연의 모니터링과 당일 시작 전 테이블작업에서의 대화를 통해 무대
위에서 발생하는 오늘의 공연을 준비합니다.
때문에 동일한 연습과 공연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것,
시인 이상의 「오감도」 시제1호에서 파생된 이야기와 캐릭터들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유은지
<하늘로 간 청춘팔> <마찰, 맥베스> <오롯이 쪽빛 노래>
<꽃나들이> <발코니> <나는내가없던시간에대해무지하다> 외 다수



허정도
<마찰, 맥베스> <코리아라너스> <가모메> <내일 공연인데 어떡하지!>
<달나라연속극> 외 다수



정슬기
<마찰, 맥베스> <아우슈비츠> <영원한 침대> <마로윳츠 햄릿>
<너의 외로움은 늘 작다> 외 다수



황인수
<슬리핑뷰티> <마찰, 맥베스> <아주 조금씩> <나비의 꿈>
<엄마가 사라졌다> <거짓말>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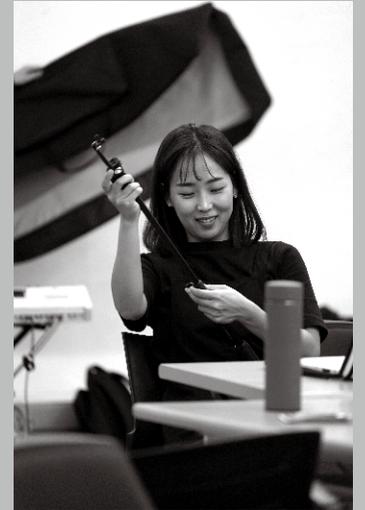
이상은 1929년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를 수석 졸업하고 총독부 내무국 건축과 기사로 근무하면서 《조선과 건축》의 표지도안 현상모집에 당선되었으며 1930년 소설 「12월 12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933년 각혈로 회사를 그만두고 다방 '제비'를 차렸으며 이 무렵 이태준, 박태원, 김기림, 윤태영, 조용만 등이 출입하며 이상의 문단교우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다방은 잘 운영되지 않았고 이상의 동거인이었던 금홍은 밖으로 나가는 일이 점점 잦아지다 결국 이상과 헤어지게 된다. 시 「이런 시」, 소설 「날개」 「봉별기」에서 금홍과 관련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것으로 이상이 금홍을 많이 사랑했고 금홍이 그의 뮤즈였음을 알 수 있다. 다방을 폐업한 이상은 또 다른 다방과 카페를 개업했으나 잇따른 경영 실패를 겪었고 친구 구본웅의 아버지가 경영하던 창문사에 취직하였으나 얼마 안 가서 퇴사하였다. 이후 변동림과 혼인하고 일본 동경으로 건너갔으나 폐결핵이 악화되었고 1937년 2월 사상불온혐의로 구속되었다. 이후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석방되었으나 그해 4월 사망했다.

이상은 스스로를 다방면의 천재라고 생각한 자의식 문학의 대표적인 선구자이며 모더니즘 사조의 시를 선도한 시대를 앞서나간 시인이다. 그가 남긴 난해한 글과 소설은 전반적으로 억압된 의식과 욕구 좌절의 현실에서 새로운 목적의 세계로 탈출하려 시도하는 초현실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풍기고 있다. 시 「오감도」는 발산되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채 억압된 육체적 에너지 과잉의 발작으로 인한 자의식 과잉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대상을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고 역설적으로 파악하는 시적 현실이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이상은 정신을 논리적 사고 과정에서 해방시키고자 함으로써 무력한 자아를 주요한 주제로 나타내는데 시 「거울」이나 소설 「날개」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상의 시와 소설은 당대 독자층에게 하나의 문단적 스캔들처럼 파문을 던졌지만 당시 현실의 모순에 대응해 직접적인 변혁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고 그의 예술적 재능과 문학적 상상력은 그 전위성과 감수성을 이해하고 인정한 몇몇 지인에게만 인정받았을 뿐이었다.

이상은 자신의 주요 분야인 건축과 문학뿐만 아니라 박태원의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삽화(1934)를 그리고 일본어 시를 쓸 정도로 그림과 외국어에도 어느 정도가 조예가 있었기에 스스로를 천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경제적, 가정적으로도 무너졌으며 당시의 불치병인 폐결핵을 앓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소설 「날개」에서 스스로를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 1910 8월 20일 출생, 본명은 김해경
- 1929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 수석 졸업
- 1930 《조선》에 첫 장편소설 「12월 12일」을 연재하면서 본격적으로 작품활동 시작
- 1932 필명 '이상'으로 시 「건축무한 육면각체」 발표
- 1933 《가톨릭청년》에 「1933년 6월 1일」 「이런 시」 「거울」 「꽃나무」 등 발표
- 1934 구인회 가입
《월간매신》에 「보통기념」 「지팡이 역사」 발표
《조선중앙일보》에 「오감도」를 발표했으나 독자들의 반발로 연재 중단
- 1936 단편 소설 「지주회시」 「날개」 「봉별기」 등 발표
- 1937 소설 「동해」 발표
4월 17일 도쿄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사망

연습 스케치



마찰은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과 닮은 건가. 대본이 없다. 정확한 배역도 없다. 정해진 음악도 소품도 조명 큐도 없다. 없는 게 너무 많다. 텅텅 비어있다. 무대도 비어 있고, 대사도 비어 있다. 텅텅 빈 무대에 배우들이 들어간다. 아, 있다. 일반적인 공연과 다르게 유일하게 마찰 작품에 있는 딱 하나가 있다. 연출이 무대 안에 있다. 세상에. 공연 시작 1시간 전인데 대본이 안 만들어졌다. 30분 전인데 무대가 움직인다. 20분 전, 조명을 옮기다니. 10분 전, 음악은 있는 거냐? 1분 전, 젠장 이대로 시작하려나 보다.

텅텅 빈 무대에 배우들이 움직인다.

텅텅 빈 무대에 연출의 발자욱들이 어지러진다.

연출의 귓속말로 배우들은 움직이고 대사를 내기 시작한다. 그때 그 순간에 만들어지는 대사들이다. 한순간에 이상이 되고, 금홍이 되고, 변동림이 되고, 달리는 아해들로, 그때의 누군가로 바뀐다. 큐 하나 없던 빛이 어느새 꺼지고 켜진다. 소리가 배우들을 따라온다. 때론 배우들을 데리고 간다. 텅텅 비었던 무대들이 채워져 간다. 매일 매번 다른 그림으로 채워져 간다.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묻고, 답하고, 쓰고, 움직인다.

이상, 그의 생을 살펴보다.

이 방. 미동도 하지않는 공기.
이 적막함에 놀리는것이 좋았다
이불의 색이 빠지고 벽지 색깔도 빠지고
내 머리색도 빠지고 나도 빠지고 나면
- 의석

나는 거기 있었다.
위에도 있었고 아래에도 있었고,
나는 거기 있었다.
안에도 있었고 밖에도 있었고.
나는 누워도 있었고 엎드려도 있었고.
나는 거기 있었다.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나는 그래도 거기 있었다. - 인수

이상의 작품을 읽고 또 읽고.

너는 시를 썼는데
사람들은 시를 만들었다
또 너를 만들고 나를 만든다
너는 나를 만들었고
나는 너를 만들었으니
딱히 할 말은 없다. - 현수

난 철저한 개새끼다.
난 내 생각만 한다.
난 나의 욕심이 최우선이다.
난 이불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 그치만
난 유명해지고 싶다.
난 대화하고 싶지 않다. 그치만
난 다른 사람이 날 이해했음 좋겠다.
난 게으르다.
난 정말 철저한 개새끼다. - 수미

이상의 사람들

오늘은 올까, 안 올까.
오래도 했다 이 걱정.
지루하다 이것도.
아 오늘은 안 온다....하고 나면 온다.
어제 밤도 그랬다.
표정이 하나도 없이 왔다. ...
아 왔구나...참 끔찍했다.
오지 말아버리지....하고는
결국 안도하고 잤다. - 철승

너가 매번 하던 실없는 농담을 안 하면
항상 말던 내 뉘새를 더이상 궁금해하지
않으면
이어폰을 끼거나 수첩에 뭔가를 빼곡히
적어가면
그렇게 비를 쫓막 맞고도 그대로 나를
스쳐 지나가면
내가 외출할 때가 왔구나 생각할게.
- 은지

오감도 시 제1호의 뛰는 아해들

사람들이 달리기 시작했어. 혼신의 힘을
다해 뛰어오는 거야.
파도처럼 밀려왔어. 구르고, 넘어지고,
밟고, 밟히고. 살면서 한 번도 그렇게
큰 소리를 내본 적 없는 그들이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온몸을 떨면서
소리를 지르며 뛰어왔어.
근데 모르는 것 같았어.
그게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 그냥 더 넓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뛰어었어.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정말 웃긴
일이었거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아무도 웃질 못했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알게 되니 그때부터 나는
더 두려워졌어. - 슬기

오 저기 저기 저기 저 저기 저기
아 아아 우와 오와 야 아오 이아
야 시바 근데 우리 왜 뛰고 있냐
아 몰라 그냥 뛰어 줄 짜증 나네
깍 안돼 엄마 엄마 까 아빠 오빠
오 시바 머지 시바 셋 머지 머지
왜 뒤에 압도 없지 헐 그럼 난가
어 시바 이거 좋다 다 나를 피해
오 이왕 일케 된거 확 놀아 볼까
학 여기 여기 어흥 학 저기 저기
어 근데 이거 뭐지 급 오씩 오씩
헐 내가 아냐 그럼 좃 됐다 으악
엇 내가 제일 뒤네 헐 그럼 난가 - 정도

너가 제일 두려운게 뭐야?

난 그 질문도 무서운데,
나도 모르게 혹 말해버릴까봐도 무섭고.
꺼내는 순간 더 무서워질까봐 무서운데.
그렇게 두려워할 시간에 뭐라도 하라고
말하고 싶지?
말하고 나면 뭘 어찌해줄 수도, 해줄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그 이기적인 얄은 호기심. - 은지

보이던게 안보이고
들리던게 안들리고
건던 길을 걸을수가 없고
당신들을 기억 못할....그건 좋겠고...
차라리 처음부터 몰랐으면 덜
무서울려나? - 인수

계속 이렇게 살아있을까봐 두려워.
너무 외롭고, 아프고, 슬퍼.
온 몸이 답답해.

이거 이거 길을 뚫어주지 않으면 팍
터질지도 몰라. - 슬기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야?
별 거 아니면 말해봤자 의미도 없고,
정말 두려운 거면 떠올리기조차 싫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질문할래? - 정도

정리 김현수(드라마투르기·조연출)

오감도 시 제 1 호

13인의아해(兒孩)가도로로질주하오.
(길은막다른골목이적당하오.)

제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2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3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4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5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6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7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8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9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10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1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2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13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13인의아해는무서운아해와무서워하는아해와그렇게뿐이모였소.
(다른사정은없는것이차라리나았소.)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그중에2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그중에2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좋소.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좋소.

(길은뚫린골목이라도적당하오)
13인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지아니하여도좋소.

오감도 시 제 10 호, 나비

찢어진벽지에죽어가는나비를본다.그것은유계에낙역되는비밀한통화구다.어
느날겨울가운데의수염에죽어가는나비를본다. 날개촉쳐어진나비는입김에어
리는가난한이슬을먹는다. 통화구를손바닥으로꼭막으면서내가죽으면왔다
일어서드키나비도날라가리라.이런말이결코밖으로새어나가지는않게한다.

오감도 시 제 15 호

1
나는거울없는실내에있다. 거울속의나는역시외출중이다. 나는지금거울속의 나를무서워하며떨고있다. 거울속의나는어디가서나를어떻게하려는음모를하는중일까

2
죄를품고식은침상에서졌다. 확실한내꿈에나는결석하였고의족을담은 군용화가내꿈의백지를더럽혀놓았다.

3
나는거울있는실내로몰래들어간다. 나를거울에서해방하려고. 그러나거울속의나는침울한얼굴로동시에꼭들어온다. 거울속의나는내게미안한뜻을전한다. 내가그때문에영어되어있듯이그도나때문에영어되어떨고있다.

4
내가결석한나의꿈. 내위조가등장하지않는내거울. 무능이라도좋은나의고독의갈망자다. 나는드디어거울속의나에게자살을권유하기로결심하였다. 나는그에게시아도없는들창을가리키었다. 그들창은자살만을위한들창이다. 그러나내가자살하지아니하면그가자살할수없음을그는내게가르친다. 거울속의나는불사조에가깝다.

5
내왼편가슴심장의위치를방탄금속으로엄폐하고나는거울속의내왼편가슴을겨누어권총을발사하였다. 탄환은그의왼편가슴을관통하였으나 그의심장은바른편에있다.

6
모형심장에서붉은잉크가옆질러졌다. 내가지각한내꿈에서나는극형을받았다. 내꿈을지배하는자는내가아니다. 악수할수조차없는두사람을봉쇄한거대한죄가있다.

오감도 시 제 2 호

나의아버지가나의겨테서조울적에나는나의아버지가되고또나는나의아버지의 아버지가되고그런데나의아버지는나의아버지대로나의아버지인데어찌자고 나는자꾸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니나는웨나의아버

지를굉장뛰어넘어야하는지나는웨드되거나와나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노릇을한꺼번에하면서살아야하는것이냐

오감도 시 제 3 호

싸흠하는사람은즉싸흠하지아니하든사람이고또싸흠하는사람은싸흠하지아니 하는사람이엇기도하니까싸흠하는사람이싸흠하는구경을하고십거든싸흠하지아니하든사람이싸흠하는것을구경하든지싸흠하지아니하는사람이싸흠하는구경을하든지싸흠하지아니하든사람이나싸흠하지아니하는사람이싸흠하지아니 하는것을구경하든지하얏으면그만이다

오감도 시 제 4 호

환자의 용태에 관한 문제.

1234567890 ·
123456789 · 0
12345678 · 90
1234567 · 890
123456 · 7890
12345 · 67890
1234 · 567890
123 · 4567890
12 · 34567890
1 · 234567890
· 1234567890

진단 0 : 1

26.10.1931
이상 책임의사 이 상

오감도 시 제 8 호, 해부

제1부시험	수술대	1
	수은도말평면경	1
	기압	2배의 평균기압
	온도	개무

위선마취된 정면으로부터 입체와 입체를 위한 입체가 구비된 전부를 평면경에 영상시킴. 평면경에 수은을 현재와 반대측면에 도말이전함. (광선침입방지에 주의하여)서서히 마취를 해독함. 일축철필과 일장백지를 지급함. (시험담임인은 피시험인과 포옹함을 절대기피할것) 순차수술실로부터 피시험인을 해방함. 익일. 평면경의 종축을 통과하여 평면경을 2편에 절단함. 수은도말 2회.

ETC 아직도 만족한 결과를 수득치 못하였음.

제2부시험	직립한 평면경	1
	조수	수명

야외의 진실을 선택함. 위선마취된 상지의 첨단을 경면에 부착시킴. 평면경의 수은을 박락함. 평면경을 후퇴시킴. (이때 영상된 상지는 반드시 초자를 무사통과 하겠다는 것으로 가설함) 상지의 종단까지. 다음 수은도말. (재래면에) 이순간 공전과 자전으로부터 그 진공을 강차시킴. 완전히 2개의 상지를 접수하기까지. 익일. 초자를 전진시킴. 연하여 수은주를 재래면에 도말함(상지의 처분) (혹은 멸형)기타. 수은도말면의 변경과 전진후퇴의 중복등.

ETC 이하 미상

아침

캄캄한공기를마시면폐에해롭다. 폐벽에끌음이얕는다. 밤새도록나는몸살을 앓는다. 밤은참많기도하더라. 실어내가기도하고실어들여오기도하고하다가 잊어버리고새벽이된다. 폐에도아침이켜진다. 밤사이에무엇이없어졌나살펴본다. 습관이도로와있다. 다만내치사한책이여러장찢겼다. 초취한결론위에아침햇 살이자세히적힌다. 영원히그코없는밤은오지않을듯이

이런시

역사를 하노라고 땅을 파다가 커다란 돌을 하나 끄집어 내어놓고 보니 도무지 어디서인가 본 듯한 생각이 들게 모양이 생겼는데 목도들이 그걸을 메고 나가더니 어디다 갖다 버리고 온 모양이 길래 쫓아나가 보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큰길가더라.

그날 밤에 한 소나기 하였으니 필시 그 돌이 깨끗이 씻겼을 터인데 그 이틀날 가 보니까 변괴로다 간데온데 없더라. 어떤 돌이 와서 그 돌을 업어 갔을 까 나는 참 이런 처량한 생각에서 아래와 같은 작문을 지었도다.

‘내가 그다지 사랑하던 그대여 내 한평생에 차마 그대를 잊을 수 없소이다. 내 차례에 못을 사랑인 줄은 알면서도 나 혼자만 꾸준히 생각하리다. 자 그러면 내내 어여쁘소서’
어떤 돌이 내 얼굴을 물끄러미 치어다 보는 것만 같아서 이런 시는 그만 짝어 버리고 싶더라.

지비 2

안해는 정말 조류였던가보다, 안해가 그렇게 수척하고 가벼워졌는데도 날으지 못한 것은 그 손가락에 깡 기웠던 반지 때문이다, 오후에는 늘 분을 바를 때 벽 한겹 걸러서 나는 조롱을 느낀다, 얼마 안 가서 없어질 때까지 그 파르스레한 주둥이로 한번도 쌀알을 쪼으려 들지 않았다. 또 가끔 미닫이를 열고 창공을 쳐다보면서도 고혼 목소리로 지지귀려 들지 않았다. 안해는 날을 줄과 죽을 줄이나 알았지. 지상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았다. 비밀 한 발은 늘 버선 신고 남에게 안 보이다가 어느 날 정말 안해는 없어졌다. 그제야 처음 방 안에 조분 내용새가 풍기고 날개 퍼덕이던 상처가 도배 위에 은근하다. 해 뜨러진 깃 부시러기를 쓸어 모으면서 나는 세상에도 이상스러운 것을 얻었다. 산탄 아아 안해는 조류이면서 염체 닳과 같은 쇠를 삼켰드라 그리고 주저앉았더라. 산탄은 녹슬었고 솜털 내용새도 나고 천근 무거더라. 아아

척각

목발의길로도세월과더불어점점길어져갔다.
신어보지도못한채산적해가는외딴구두의수효를보면슬프게걸어온거리가짐작되었다.
종시제자신은지상의수목의다음가는것이라고생각하였다

지비

내키는커서다리는길고원다리아프고안해키는작아서다리는짧고바른다리가아프니내바른다리와안해원다리와성한다리끼리한사람처럼걸어가면아아이부부는부축할수없는절름발이가되어버린다무사한세상이병원이고꼭치료를기다리는무병이끝끝내있다.

연출 김철승

극연구소 마찰 예술감독

<마찰, 맥베스> <타이터스> <나비의 꿈> <영원한 침대> <엄마가 사라졌다> <너의 외로움은 늘 작다> <햄릿머신> <꽃나들이> 외 다수

드라마투르기·조연출 김현수

출연 <하늘로 간 청춘팔> <우쭈훤쭈 놀바홍> <오롯이 쪽빛 노래>
조연출 <하늘로 간 청춘팔> <풍각쟁이> 외

무대·무대감독 정수미

<마찰, 맥베스> <지극히 개인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타이터스>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아주 조금씩> 외

조명_라이브 디자인 광태준

<남의 연애> <마찰, 맥베스> <지극히 개인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타이터스> <우주인> <책갈피> 외

의상 황인화

의상 <마찰, 맥베스> <타이터스>

무대 <하늘로 간 청춘팔> <모란이 피기까지는> 외

분장 장경숙

<이제 내 이야기는 끝났으니 어서 모두 그의 집으로 가보세요>
<거대한 뿌리> <뼈의 기행> <나는 살인자입니다> <녹천에는 똥이 많다> 외 다수

사운드_라이브 사운드 메이킹·연주 정의석

<사이의 형태_비공식적 언어> 음악, <사랑 및 우정에서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사운드, <2019세월호 - 바람없이> 사운드, <성 쌓고 남은 돌 The remaining stone> 영상음악, <Viewport>展 공간음악, <공간의 탐닉>展 공간음악 외

출연 유은지 정슬기 허정도
황인수

스태프

작 공동창작

연출 김철승

드라마투르기·조연출 김현수

무대 정수미

조명 광태준

의상 황인화

분장 장경숙

사운드 정의석

기술감독 김무석

무대제작감독 홍영진

조명감독 김용주

음향감독 박정현

의상감독 박지수

무대제작 온스테이지 대표 김준성

무대진행 최정환

의상제작 디바인스트리트 대표

고무성

의상진행 최단비

분장진행 박채원

조명장비임차 토탈코리아 대표

신재, 코디네이터 박민수

특수조명제작 제이컴 대표 전혁

조명팀 최인수 정하영 김경호

조예지 손은영 박혜민 윤지영

김현아 유보민 김민기 정요셉

음향장비임차 MONKEY 대표

김정훈

음향팀 한동찬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변경원 최윤영 이송이 김울

마케팅 김태은 한나래 오지수

이정민 김효진

대학생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6기 김희진 서효영 이가윤

임소영 정기웅 황지연

티켓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보연

대표안내원 고은지 김다애

김인혜 노소연 박민주

하우스매니저 김수현 조영채

김나래

하우스안내원 김성주 권묘정

전준형 박만수 이지은

이해조 정진영 오민지

김희지 정주호 지윤아

연하은 이민경 임지은

메인·응용 디자인 리프트오프

(이진우)

홍보사진 그린비(장성용,

정원균)

연습·공연사진, 기록영상 최용석

옥외광고 킨비즈, 오감

홍보물 인쇄 효성문화

프로그램 디자인

키오스크키오스크(민진아)

프로그램 인쇄 청산인쇄

제작총괄 지민주

기획·제작 프로듀서 김옥경

제작진행 정은서

판 예술감독 윤한솔

제작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헌 이사장 네이버(주)
 前대표이사
 이성열 이사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고희경 이사 홍익대학교 교수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장
 조현래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작품개발실
 정명주 실장
 지영림 작품개발·학술
 박으뜸 공연자료 관리
 나수경 청년인턴

공연기획팀
 지민주 팀장
 김옥경 김영래 김철순 정채영
 심소연 박성호 프로듀서
 박소영 프로듀서 보
 정은서 청년인턴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최윤영 이송이 변정원 김울 홍보
 박보영 한나래 김태은 오지수
 이정민 김효진 마케팅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보연
 티켓

김나래 김수현 하우스매니저
 조영채 청년인턴

무대기술팀
 김무석 팀장
 신승호 김정빈 무대감독
 최슬기 홍영진 김혜란
 무대제작감독
 나혜민 무대기계감독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음향감독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박지수 무대의상감독
 권라임 이현경 이미현 장도희
 김지유 연수단원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신민희 대외·평가·예산·감사
 현승은 박지민 김수아 예산·회계·
 세무
 이민희 인사·복무·복리후생
 정병옥 시설·용역·공사
 박예원 이사회·제도·교육
 김시내 비서·윤리경영·경영공시
 주현우 노무·자산·계약·정보화·
 전산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손준형 연구원
 최은정 예술교육
 김연지 배규림 작은극장

2019 시즌단원
 강해진 김한 김수아 박가령
 박경수 양서빈 이수미 이원희
 이호철 임준식 장지아 정원조
 정새별 조남용 주인영 홍아론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도 국립극단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약 1분 소요)에 참여하세요.
 * 고객만족도조사는 공연 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극단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gil, Jung-gu, Seoul,
Korea(04534)

